

SECOND VISIT

(Acts 7:13)

“On the second visit Joseph made himself known to his brothers,
and Joseph’s family was disclosed to Pharaoh”

Today’s Bible verse is part of Stephen’s last sermon, the sermon he preached under persecution and that caused his death. It is a powerful sermon of God’s truth given by a spirit filled man about to die! In the middle of this great message, Stephen talks about the story of Joseph. Actually, when we read Joseph’s story in the Old Testament we can also easily read-in the story of Jesus. Do you remember how Joseph opened the storehouse in Egypt to save the people of the earth in like manner to how Jesus opened all of heaven to save the people of the world? Well, the second visit of Joseph’s brothers also has treasure for us to discover. Whereas Stephen considered Joseph’s story of notable importance, let us also consider it in comparison with Jesus Christ.

Before we can grasp the full impact of the second visit, we need to back track a little and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during the first visit. At the first visit Joseph’s ten brothers were scared in his presence because they didn’t know Joseph was their brother. They only saw him as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world. Their fear of Joseph can be likened to how some of us first approach Jesus. Just as they came before Joseph and didn’t recognize him, so many brothers come to church and don’t see Jesus. When Joseph’s brothers first came to him they didn’t have peace. They weren’t looking for their brother; they were only after the human comfort of grain. They returned home in fear. In our Christian lives, haven’t we looked to Jesus only for temporal blessings? Haven’t we experienced fear and apprehension? Joseph, the second in command of all Egypt, asked his brothers to return to him. He gave them hope.

They could go and come back again. If they came back, they would find a great blessing, their own brother. So, too, we can return to Jesus and find God’s secret, the spiritual food our souls require.

Joseph’s brothers didn’t know him. They didn’t recognize their own brother. Do you really know Jesus Christ? Is He really your brother? Jesus is the Son of God, and all who know Him become children of God. He has mighty power, immeasurable love, mercy, and grace. Do you know Him as ruler of heaven and earth? When we come to Jesus as Christians, there is suffering. “Indeed, all who desire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2 Tim. 3:12). Joseph experienced this suffering. Actually, he lived his life by practicing his faith. His brothers hated him and sold him into slavery. His own brothers were his enemies, “and a man’s enemies will be the members of his household” (Mt. 10:36). But in Joseph, God was with him. He was humble in spirit and God made him the biggest and greatest of men. His brothers couldn’t figure it out; they never thought about it.

Jesus was humble,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Therefore also God high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so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will bow, of those who a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that every tongue wi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 2:6-11). Jesus is the greatest of all! He truly humbled Himself and became our servant. He gave His life, His love, but people ignored Him. People still don’t know Him. People still cannot figure it out; they can’t measure His love.

Why didn’t Joseph’s brothers recognize Him on their first visit? First, Joseph didn’t let them know, and also they weren’t looking for him. They were only looking for corn. Are you really looking for Jesus? Or are you only looking for physical comfort? Are you really looking for salvation? How come you don’t know your own Brother? Joseph’s brothers didn’t have any guilty feelings. They had no desire to repent. During the first visit, Joseph’s brothers were not sincere. They didn’t bring everything to Joseph, they had left Benjamin behind. Joseph pointed this out to them, but they didn’t repent. Jesus sai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Mt. 22:37).

At the second visit, Joseph let his brothers know that he was their brother. His brothers were really scared in accepting his love. They didn’t know what he would do to them. Actually, we find ourselves in a similar situation with Jesus. We don’t know what Jesus is going to do with us. Joseph’s brothers honored him because of his authority, title, and wealth. They never thought about the fact that he was their own brother. Their mind had totally different thoughts.

Still, there is wonderful hope in the second visit. Joseph’s brothers didn’t want a second visit with him. They were scared of Joseph. They also had to bring their youngest brother, Benjamin, back with them.

This was a difficult task because their father, Jacob, held on to Benjamin with his heart. But they didn’t have a choice. There was grain only in Egypt, and only Joseph had charge to disburse it. They had to go back, whether they received a reward or a punishment, they had to go, and they had to bring Benjamin. They had delayed long enough, any longer and they would perish. At the second visit, Joseph’s brothers found the most wonderful, wonderful things. And because of their discovery, Joseph’s whole family received God’s bountiful blessings. The second visit was worth the trip.

My dear friends, if you haven’t found Jesus to be your Savior, you will die. You need to go to Him with your whole heart, like Joseph’s brothers returned with Benjamin, and He will reveal Himself to you. There is salvation only in Jesus Christ. He is the only One who can give life eternal. Don’t linger. Joseph waited for His brothers. He missed them. When they returned the second time wonderful things happened. Jesus said, “Come to Me” Joseph said, “Come near and touch me”. Joseph made his brothers comfortable. He showed himself to them and blessed them. He gave them comfort and joy, so much that Joseph’s whole family could have peace. All of Egypt heard of Joseph’s story and rejoiced. My friends, Jesus gives everlasting peace. All of heaven rejoices over the salvation of one soul! Come back to Jesus, come back to your Savior right now. You’re late but the second time is wonderful. You will find the greatest hope and love. This 2001, please in this year come back sincerely to Jesus Christ. ■



김성만 목사

두 번째 방문

(행 7:13)

“또 제자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과 예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는 불같은 박해 아래에서 전한 것이었고, 그는 이 설교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충만함으로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힘있는 설교였습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의 중간에서, 스데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요셉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이 가사는 또한 예수와 연관된 가사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창고를 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치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의 두 번째 방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발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할 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해서 논의할 보도록 합니다.

되돌아올 때 얻는 축복

우리가 요셉 형제들의 두 번째 방문에 대한 교훈을 충분하게 다루기 전에, 그들이 처음으로 방문했던 기간 동안에 벌어진 것들을 간략하게 되돌아보도록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열 형제들이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에는 그의 등장장감을 먹었었는데,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임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요셉을 세상에서 아주 권세 있는 사람 중 하나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은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께 다가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와서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으로 그에게 왔을 때는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요셉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단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곡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스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단지 일시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방문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습니까?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막대한 권력을 소유했던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다시 되돌아 올 것을 요청했습

니다. 그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되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되돌아 왔다면, 그들은 커다란 축복,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임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께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는 요셉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국부총리가 자신들의 형제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는 막대한 권세를 가지셨으며, 축광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온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예수께 나아올 때, 거기에 있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기를 살고자 하는 자는 짐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 요셉은 이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들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에게는 원수와 같았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까지” (마 10:36).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결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예수

예수는 겸손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아래로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에게 이복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골 2:6-11). 예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위대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 자신이 겸

손하셨으며,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알지 못하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뿐 아니라 그의 사랑을 축광할 수도 없었습니다.

돌이켜야 할 일

해 요셉의 형제들이 첫번째로 방문했을 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 했을까요? 우선 요셉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며, 그들은 요셉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곡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물질적인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구원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형제인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동안에 요셉의 형제들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배나민을 뒤에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팔아 넣었던 지단 남의 죄를 깨닫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

우리를 향하신 계획

두번째로 그들이 방문했을 때, 요셉은 자신이 그들의 형제였다는 것을 알라우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가 사랑으로 자신들을 받아들이주는데 것에 대해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요셉과 함께 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실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에게 경배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권위와 지위, 그리고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요셉이 자신의 형제였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형제들은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가지 잃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방문에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방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막대 동생인 배나민을 데리고 되돌아와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은 배나민을 매우 사랑하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애굽뿐이었으며, 단지 요셉만이 곡식을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아닌 형벌, 둘 중에 무엇을 받든지 그들은 되돌아가서, 배나민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 동안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었지만, 먹을 것이 동이 난 그들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가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기다리시는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배나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이 두번째로 되돌아 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요셉이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나를 만지라”.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안식시켰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위로와 기쁨을 주었고,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모두가 기뻐합니다. 예수께 되돌아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구원자에게 되돌아 오십시오. 늦은 듯 하지 마, 두번째는 놀라운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소망과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올해 2011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아오는 해가 되길 믿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단기 평신도 선교사 이소영

주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최했던 인간의 모습과 우리를 인내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놀라움 따랐었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한 삶은 어둠 속의 더 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전의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그리워하였고, 예수님은 나를 다시 찾아 고백했습니다. 나의 마음 속의 어둠과 고통은 사랑의 빛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며 어느덧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온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수 많은 밤을 기도도 지새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원하시는 자리에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고 싶다는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은 제 마음에 선교의 비전을 주셨으며 교회를 통하여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라는 작은 섬나라를 향하여,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라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



느니라' (사 43:7)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지만 아직도 1900만명의 인구중 겨우 0.8%만이 하나님을 믿는 스리랑카, 그 곳에는 우리교회 국내 외국인 선교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귀국한 30여 가정이 있어 현재 국내 외국인 선교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40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름과 겨울 단기선교팀들이 스리랑카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저는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려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인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영어성경공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사용하실 것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나 자신을 그 문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스리랑카 땅 위에 복음이 편만하기를 위하여, 그들 마음의 우상들이 제기되고 참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참 빛, 참 신이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경배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1. 선교주일(28일)을 맞이하여 찬양연습이 있습니다.

시간 : 주일 오후 3시 40분~4시 40분
날짜 : 1월 7일, 14일, 21일, 28일
장소 : 아련홀
대상 :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전원

2. 겨울 단기선교 소식

이번 주에는 스리랑카팀이 8월에 일본팀이 10월에 중국을 하며, LMTC팀(볼가리아)이 10월 귀국을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겨울 단기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 단기선교팀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2. 단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성령충만하도록
3. 성령께서 온전히 주정하시도록
4.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선사자들이 발돋움되도록
5. 모든 일절 가운데 인권을 지켜주시도록

3. 구경기간 동안 외선부 겨울 수련회

외선부 겨울 수련회가 오는 1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1박 2일 동안 충현기독교원에서 '십자가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구경을 맞아 더욱 외로운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절기간으로 많은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요.

춘천소년원을 회상하며

전도 지성경 ㉔

내가 처음 신촌중학교(춘천소년원)에 가게 된 동기는 여전증학교에서 학교에 간식을 가지고 갔기 까닭이라 하여 박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부터였고, 오늘까지 10여년이 넘도록 일하고 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며 감사와 가슴 아파던 일들을 몇자 적고자한다.

신촌 중학교 아이들을 처음 만날때는 무뎠다는 마음이 앞섰지만 막상 대하고 보니 귀엽고 사랑스러움에 아이들이 느껴지고 내가 그들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할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은 신촌중학교에서 김인구라는 학생을 맡게 되었다. 얼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아버지절 집에서 스님 식사 준비를 해주면서 먹고 산다고 했다. 자기는 절밥을 먹고 사니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아이는 공부할 때 열매만 위우고 말했만 부렀다. 그러던 중 여름성경학교에서 송병희 사인의 간증을 듣고는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 그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 그런데 1년 후에 인구가 사육 모 소년원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반회를 갔었다. '왜? 또 ...' 하고 말하려고 하니 인구가 먼저 '교회에 못 나왔어요. 이번에 나가면 꼭 갈게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파왔다. 하기가 우리도 믿을 자리가 힘든데 ... 저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을까?

신촌중학교에서 결혼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도 면회도 오지 않아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그들을 위해 음식으로 챙기고 있다. 이런 아침부터 우리 교사를 위해 지치고 복고 해서 학생들을 만나다. 그렇게 만든 음식을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면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기만 하다. 이 기쁜 일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참여하길 바란다. 이런 일을 하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항상 감사함을 금치 못하며 이런 일을 계속하길 우리도 할수있길 ...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 못하더라도 신촌중학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교전전도회)

1. 전도에 대한 오해
2. 복음의 정의와 전도의 필연성
3. 전도의 내용 (2)
4. 결산의 의미와 내용
5. 전도의 실제적인 문제
6. 전도시 반대 질문에 대한 답변

3.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의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12).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다. 이 죽음의 계곡은 너무나 깊고 넓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건너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베틀을 수가 없다. 유사 이래로 인간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의 문제를 넘어보려고 몸부림쳐 왔다. 예를 들면, 종교적 수양을 통하여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헛고 일뿐이었으며, 철학이나 과학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으며, 선행이라는 길로 죄의 문제를 벗어나보려고 해보았지만 그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다. 이는 물에 빠져 지쳐버린 사람이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4.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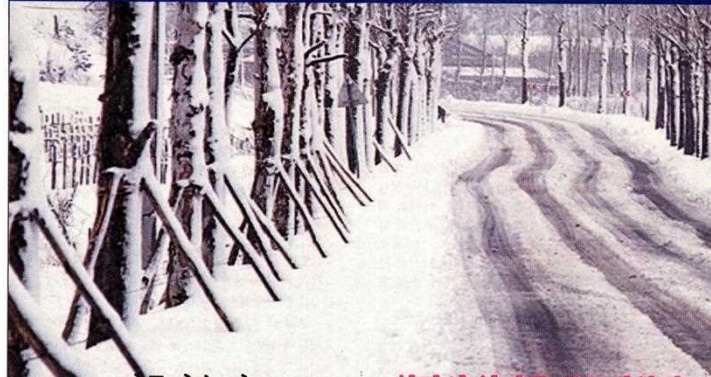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은 인간들이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사

람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그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하시려는 속죄사역을 이루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행 4:12). 나아가, 속죄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증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기리시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모든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일로써 신임해야만 구원의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만일 내게 구원을 주도록 사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그대에 죄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을 오늘날의 마음 중심에 모셔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살렘!

(정 현 민 목사 - 전도위원회 지도)



아름다운 땅 스리랑카로 떠나며...

김 용 현 (고등부)

2001년 1월 8일 1시 40분 싱가포르 행 비행기에 몸을 실고 아름다운 땅 스리랑카로 12박 13일 동안의 겨울 단기사역을 떠납니다. 단장님은 전총필 장로님이시고 지도는 충직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총무에는 오대규 전도사님이시고 청년부 4명과 고등부 5명이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팀이 하게 될 사역은 첫째, 지금 외국인 선교부에 출석하고 있는 형제들의 집을 심방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귀국한 형제들의 집도 방문할 것입니다. 심방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제시할 것이고 또한 외국인 형제들이 부탁한 전물을 전달하고 민박을 할 수 있는 집에서는 하루를 머물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둘째, 하게 될 사역은 학교 전도와 공원노방전도 사역입니다. 학교 사역은 누게고다에 있는 자쁘라 대학과 마파라에 있는 푸루나 대학을 가서 미래에 스리랑카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 준비해간 마인과 위집도 할 것입니다. 공원 노방전도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에 비토리아 공원에 가서 휴일을 이용해서 놀러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 학교와 전도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니감보에 가미나 형제 집에서 2박 3일 동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전도 초청 잔치는 우리 사역기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본부로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을 보여 주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전도 초청 잔치는 세번을 할 것입니다. 우리 팀은 이런 방법으로 사역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팀은 물결처럼 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지원해 주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혀 팀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뿐입니다. 저희 팀이 생각 날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기도제목은

1. 성령 안에서 하나 됨으로 선을 이룰 수 있게
2. 준비된 영혼들을 만났을 때 대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3. 심방사역을 했을 때에 가족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4.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5. 이동할 때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 태 윤 (고등부)

"태윤아!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다오"

회장 임기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가는 마지막 주일날 분당 앞에 서서 십자가를 뿔꼬리미 올려다 보며 지난 일년 간의 생활을 되돌아 봤다.

회장으로서 지난 일년...

고등부를 위해서 중보하며 흘린 눈물의 양보다는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한탄하고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서러운 마음에 흘린 눈물의 양이 더욱 많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기 보다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며 내 '욕심의 십자가'의 무게에 자주 넘어졌던 한해였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던 때에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가 나를 돌아보게 했다.

온갖 불평과 비판으로 가득했던 나에게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한마디를 편지가 말씀하셨다.

지난 일년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일까... 환경에 지배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름 끼치도록 온 몸으로 느끼며 감시하며 힘을 얻고 회장으로 섬길 수 있었다.

항상 도와주신 고등부 선생님들과 임역원들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평

글·그림 장민/(minj74@jaangminn.com)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동한 해는 데일메일
주님과 새로운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고등부 회장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제생에 무를 꿰지 않는 젊은이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2001년 고등부 회장이 되어

김 상 혁 (고등부)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고등부 믿음11반 김상혁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기 원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고등부 회장이 되니, 무척이나 격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것으로 큰 위도가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학생들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참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세요. 우리 고등부를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간의 사랑은 물론 이끼니와 친구들 간의 사랑, 부모님, 선생님과의 사랑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심혈한 예배드리고, 서로서로 전교하는 시간을 일차게 많이 보낼 것입니다. 고등부에서는 학교학습화를 중요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충만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전파에도 모든 힘을 쏟는 고등부가 되고자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방황하는 불쌍한 청소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청소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기도하며, 저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된 고등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봉사하는 회장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0년 구역탐방 보고서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구역탐방은 각 구역에서 추천된 모범 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자 하겠다. 보고 내용은 일반 구역의 상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기사가 나간 구역은 9개 구역이며 실제 탐방한 구역이 더 있지만 구역의 요청으로 기사화 되어지지 않았고 보고에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보고 내용은 대략 각 구역은 자 구역과 비교해 보고 모든 구역이 모범 구역과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1. 구역장

1) 준비지도(말씀 준비 및 심방상태)

각 구역에서 추천된 구역들이 모범 구역이 되는 데는 구역장들의 공이 가장 크다 고 감히 말하고 싶다. 구역장들은 말씀 준비에 철저했으며 심방상태 역시 구역원들이 왜 안 왔는지 모르는 구역장이 한 명도 없었다.

2) 인도 방식

간증 및 개인 묵상 대화를 이용한 대화형 인도 방식이 권장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방형으로 구역장의 설교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안타까웠다. 대화형 및 발표형으로 인도하는 구역은 9개 구역중 4개 구역이 있었다.

3) 양육상태

a. 구역원 생활과목 - 탐방했던 9개 구역 모두가 예배 후 교제를 나누었고 6개 구역이 각 구역원들 가정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회를 진행했다.

b. 교회 활동 참여유도 - 9개 구역 모두가 교회 활동 참여에 대해 진정 및 보고, 교제를 했으나 교회 활동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구역은 2개 구역뿐이었

다.(기도회 및 성경공부 참여유도)

2. 구역원

1) 시간 엄수

가장 안 지켜지는 사항이다. 대체로 정시에 예배를 시작하나 구역원들이 정시에 잘 안 온다. 아이들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다. 구역에 따라서 시간은 10시로 앞당기거나 12시로 늦추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2) 참여 상태

a. 말씀 준비 - 인도 방식이 대화형인 6개 구역은 말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일방형으로 진행되는 구역은 파악이 불가능했다.

b. 질문 및 발표 -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 방식이 대화형인 6개 구역은 질문 및 간증이 활발했다. 일방형 인도 방식을 취하는 구역은 전혀 없었다.

c. 교제 및 봉사 - 교제는 구역원들이 모두 기다리는 시간이다. 자녀 교육 및 생활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제 중에 봉사에 대한 도전을 받는 구역원도 여럿 있었다. 교제는 말씀 실천의 통로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3. 구역 모임

말씀을 나누는 후의 교제로 일단은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천사항과 구역 내 어떤 목표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실제로 더 나은 교제를 위해 연락망을 짜고 각자 전도 계획서를 작성하는 구역이 있었다.

+ 양호실

성도님들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회개를 얻기도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1교구 양미화성도(여36세) 교통사고로 뼈가 붙지 않아서 골반뼈를 다리에 이식하여 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4개월 뒤)

2교구 이관섭성도(남25세) 교통사고로 영동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열이 심한 상태입니다. 골반뼈가 잘 붙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교구 고길중성도(41세) 직장암과 대장암으로 치료중입니다.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합니다. **김재수수사(69세)** 커피에 알로오 강낭병원 592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홀로 살고 있으며 생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6교구 김영미성도(여40세) 는 영적인 문제로 영적혼란이 있습니다.

13교구 황순기집사(여48세) 근 위축성 측삭증(A.L.S:세계적인 희귀병으로 치료 불가능)으로 하반신부터 몸이 마비됩니다.

용매가 갈라진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평화 속 이야기기 아닙니다.

먼저라도 수 많은 용매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8교구

떡집 아가씨

김 천 손 (집사, 8교구)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떡집이 하나 있다. 그 떡집이 내에는 떡집이 있다. 그 떡집은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요즈음 아주 보기드문 그런 집이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한다. 그 가족중에 판매를 담당하는 뚝은 그 집 딸입니다. 그 집 딸만이 아가씨는 항상 인사도 친절하고 친절할 뿐만아니라 먹을 사가는 사람에게는 물론 떡집 앞을 지나는 사람에게는 배 방금 뿜아 뜨끈 뜨끈한 가래떡을 조금씩 찢아 맛을 볼수 있도록 나누어 주곤 한다. 그래서 그 떡집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언제나 대접받는 마음이 들어 행복해 집니다. 그 아가씨의 아름다운 친절에 보답하고자 추수 감사절에 우리 소년부 어린이 간식으로 그 떡집에서 떡을 맞추게 되었다. 그 아가씨는 자기 집에서 떡을 맛있게 하고 그것을 감하게 생각을 해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라면서 먹여보라고 우리집에다 배추무루, 쪽파, 갖 등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것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나는 너무 감격해 도저히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맛있는 샌드위치로 만들어 주었다. 그 다음날도 그 아가씨와 나는 서로 마음껏 주고 받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성탄절을 맞이해 나는 그 아가씨에게 예쁜 볼펜치를 선물로 주었고 그 아가씨는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고...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서로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마음을 주고 받고... 이런 것이 살맛 나는 세상 아닐까?

병증 이야기

좌절은 없다

정 범 용 (7교구)



백혈병 환자라면 보통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1일 본지로 들어갈 때 까지만 해도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걱정해 주는 주위 사람들을 보고 웃어주며 웃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충원교회 성도님들이 헌혈에도 보내주고 기도도 해 주셔서 저는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이 워낙 힘이 들다보니 의지와 믿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항암제의 고통은 맞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어찌까지만 해도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오늘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딱딱한 몸이 꼭 나 같아 두려워집니다. 골수 기증자만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기증자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하니까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김인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실 때 강한 마음을 갖게 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수가 맞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간염 환자임이 밝혀져 다시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흐르다가 충원 성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수 기증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거래를 막기 위해 기증자와 환자 가족과는 일체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 기증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한 때는 좌절을 했지만 이제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제게 좌절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자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호의와 친절을 보이는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한다는 것은 항상 행위의 문제와 심각하게 대조를 이룬다. 은혜가 기쁜 때이다. 자지기가 없다는 이야기기 나온다. 은혜는 결코 반을 자치지 않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쪽에서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은혜에 대해 한 가지 더 강조해야 할 것은 은혜는 완전히 무로라는 점이다. 당신에게 절대로 갖고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갖고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고 무엇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는 말을들 하지만, 은혜는 분명히 무로없이 아무 함정도 없다. 우리가 갖고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에게 모욕이므로, 그 별 생각도 없이 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죄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므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조건, 전유, 이것이 은혜, 곧 놀라운 은혜이다.' 당신이 한번 은혜로 맞이하는 자유를 잊으면 더 이상 무기력한 율법적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으리라.

-Charles S. 스미스의 은혜의 길상 중서-

'김하원' 어린이의 예수님 사랑



주일 아침 유아부 교사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지런히 유아부실로 들어서면 항상 먼저와 있는 김하원 어린이. 할머니 장승남 권사님께서 손을 맞잡고 혹은 할머니께서 끌어안고 기도도 주일 하루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모습.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예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하원과 잠시 시간을 같이 하니 저 어린이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꼭꼭 숨겨져서 뿌리내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예쁜 헬로키티 인형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가 아깝지 않게 드리고 싶대요. 집에서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잠자기 전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 언니, 하원이 셋이서 각자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든대요. 기도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23편이래요. 왜냐하면 다 암송하고 있거든요. 유아부 성경 암송대회에서 상도 받고요. 유아부 어린이들이 말씀 암송하기는 어렵지만 암송하고 나면 너무 좋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병철이니라(잠 9:10) 했으니 조지교육이니 영재교육이니 하며 세상 지식을 넣어주지 않아서 유아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여 예수님의 지혜와 더불어 키가 자라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으실 가신 것처럼(눅 2:52)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도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나 충헌의 귀한 천국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장영자 권사·유아부 부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칫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의 오신 것을 축하하는 소리가 유치부에 울려 퍼졌다.

예수님의 생일 전날, 온 유치부 식구들의 시선이 기대 상으로 집중되었다. 유치부 어린이 친구들이 그 동안 연습한 뮤지컬의 막이 올랐기 때문. 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연극하는 친구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주인공들의 모습이 참 신기하였고 키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른들의 몸과 다를 바없이 대담하였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 온 부모님들이었다. 소인국 사람들의 생을 엿보는 듯한 느낌과 함께



뮤지컬 제목은 '마구간의 구세주'였다. 대역을 맡은 아이들이 대본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한 것을 발표하는 순간, 지도하신 교사들은 모두들 기쁘고 있었으나 아이들은 대담하고 솔직한 마음을 마음대로 오묘하고 표현을 하였다. 깨끗하고 반짝거리는 천사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고, 마리아는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어린이들이 삼모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코믹하기까지

그 당시의 마리아의 성화를 생각하게 하면서 보는 이들이 즐겁게 숙연하게 하였다. 의외하고도 든든해 보이는 요셉,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소란한 들쭉날쭉한 여파 주신... 다양한 움직임으로 관중들의 마음을 잡을 줄을 해 주었다. 게다가 석가대원의 함성소리는 뮤지컬무대에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 주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이해하기 힘들고 별다른 이기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주 출하며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하는 약혼녀의 임신을 들었으나 주님께 순종하는 요셉의 담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 유치부 교사들은 다시금 순종하는 자세와 굳건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더 기도하고 주님의 은사에 귀기울리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이들과 주위에

사람들에게 베푸는 교사들이 되기를 기도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과연 마리아와 요셉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또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유치부)

장영의 생일

'역대기(The Chronicle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역대기는 히브리어 제목(dibre hayyamim)으로는 '그 날들의 사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70인경에서는 '생략한 일들'(the things omitted)이라는 의미를 가진 책이었다. 이것은 사두세리파와 열왕기서의 부록으로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나중에 라틴·벌게이트(Latin Vulgate)의 번역자인 제롬(Jerome: AD 347-420)은 이것을 '모든 신성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진 제목을 붙일 것을 제안했다. 종교개혁자 루터(Luther)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역대기는 70인경에 의해서 처음으로 둘로 나누어지기도 했지요. 그리고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역대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역대기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에서 편지'하거나 또는 '제사장적인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구요? 다윗왕의 줄기를 따라 태초까지 올라간 후에, 역대상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번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의로운 통치가 갖는 영적인 중요성의 유혹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림 예배를 예로 들면서 한 분신자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영광과 장엄한 성전건축의 시기로부터 바벨론 포로 기까지의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선전하고 있던 왕들이 권좌에 올랐고,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지도자의 모습과 백성의 모습을 동일하였음을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들은 70년의 포로 후에 귀환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고소스의 직령이 내려지므로, 그러나 역대기에는 분열왕국의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열왕국 중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 백성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도가 있는 뜻이지요. (다음 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출판국지도)

· '남아다 주님과 함께'에서 일부 발췌

나비의 그리스도의 반지니



기다림

연못 스저가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부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원에 들어왔다. 연초이기도 한지라 한아름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침묵하며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이 소중한 시간이 준비되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핸드폰의 전원을 끄는 것이었다. 얼마나 전원을 꺼두었을까? 저녁 무렵 있고 있다가 핸드폰의 전원을 다시 켜놓았다는 뜻이 핸드폰은 '배터리' 하며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알렸다. 사실 나는 누구로부터 메시지가 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었다. 메시지가 보내진 시간은 오전 10시경. 무려 열 시간여를 이 문자메시지는 전원이 꺼진 내 핸드폰에 도착하지 못하고 맴돌았다는 생각을 하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문득 너무도 만든 이처럼의 문앞에서 노크를 하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생화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핸드폰의 주변에서 기다리다 전원을 켜자마자 들어온 문자 메시지가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나에게 연애편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의 문앞에서 계시는 기다림... 그 자체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생각을 했다. 날이 추워서일까? 괜히 추운데도 기다리셨을 예수님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혼자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유로움과는 달리 마음에 조금 답답한 생각이. 13장 23절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24절의 줄은 문과 연결이 되어 지며 급기야 25절은 그 문이 닫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죽은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나비가 바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신 뒤에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비가 아니라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하리라' 이렇게 지나가는 내가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내가 문을 닫아도 예수님은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잠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았다가 도슬케 열어 다시 돌고돌고 하라는 표현도 가능했다. 하지만 새해초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오래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 후에 만약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은 나의 애원에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러한 사고와 과정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한다. 매일 나는 주님께 열려놓는다.

(박철용 전도사)

